



그림61 중공군의 마을 폭격으로 부상당한 아이(1951. 4. 29)



그림62 고아원생들을 위해 정박된 병원선 갑판위에서 파티를 열어주는 미 해군(1951. 5. 14, 부산)



그림63 헌병대 사이에서 이동을 준비하고 있는 피난민 가족(1951. 5. 18)



그림64 자동차가 서울로 들어오기 전 통행증을 체크하는 헌병(1951. 6. 18)



그림65 6.25전쟁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승만대통령과 정부인사(1951. 6. 25, 부산)



그림66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미국인 신부가 북한군 포로들에게 천주교를 선교하는 장면(1951. 6. 26)



그림67 피난민촌에서 어린 소녀가 먹을것이 없어 풀뿌리로 밥을 짓는 모습(1951. 8. 18)



그림68 미 제10군단 바이어스 소장(Clovis E Byers)이 전선 현장에서 국군에게 은성훈장(Silver Star Medal)을 수여하는 모습(1951. 9. 28)



그림69 미 제25사단 제14연대 군인들이 중공군과의 전투에 앞서 아침배식을 받는 모습(1951. 10. 11, 금화지구)



그림70 유엔군으로 참전한 터키여단 정찰소대 군인들이 임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1951. 10. 25, 금화지구)



그림71 미국인들이 보내온 의류를 아이들에게 입혀주고 있는 미 제7사단 제17연대 군목((1951. 10. 27)



그림72 (이전에는 부산지역 학생이었던) 공산당 여성이(나이 20살)가 국군수도사단에서 심문받는 모습(1951. 11. 13)



그림73 미 제25사단 소속 군인들이 중공군 적진을 폭파하기 위해 곡사포를 장전하는 모습(1951. 11. 20)



그림74 미 제25사단 소속의 탱크부대가 적진을 향해 포격하고 있는 모습(1951. 11. 26)

~~RESTRICTED~~  
SECURITY INFORMATION



그림75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이송되어 온 공산포로들 모습(1951. 12 10)



그림76 서울에서 피난 온 학생들을 위한 피난민촌 임시 초등학교에서 DDT를 아이들에게 살포하는 모습(1951. 12. 13, 대구)



그림77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전쟁고아들(1951. 12. 22, 부산)



그림78 미 제2사단 제23보병연대 제2소대가 순찰을 목적으로 벵커진지로 이동하는 모습(1952. 1. 1)



12-580-4/P2022-30159

그림79 피난민 수용소에 있는 거주 텐트(1952. 7. 7)



그림80 북한 강제노동수용소에서 남한으로 탈출한 아들을 얼싸안고 기뻐하는 어머니(1953. 11. 25)